

생명철학과 시¹⁾

신 동 원²⁾

맥길대 겸임교수, 수필가

들어가면서

생명은 매우 폭이 넓은 이념적 개념이다. 그래서 생물학과 철학과 시 모두 특히 생명을 주제로 사유하고 연구하는 지적 세계다. 그러기 때문에 햇빛이 프리즘을 통하면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빛으로 나뉘듯이, 생명이라는 개념도 넓고도 넓은 지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사람은 사람에서부터 나오지만 침대는 침대에서부터 나오지 않는다. 유전하는 생명을 설명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다. 생물학자 멘델은 이를 완두콩 할아버지와 완두콩 손자를 예로 들며 우연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유전정보와 그 정보의 우열에 따라 질서있게 유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인 워어즈워드는 인간의 경우 성장할수록 세속화되어, 결국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라 말한다. 얼핏 멘델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다. 그리고 시인 엘리엇은 20세기의 4월은 죽어버린 땅에서 라일락이 피어나는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하며 노벨문학상을 받는다. 드디어 생물학자 카슨 여사는 이제 지구에서의 봄은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은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 될 거라고 예언했다. 모두 각각 고유한 렌즈로 생명현상을 설명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이해하려면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른 시각에서 이를 살펴보는 이들의 세계에도 귀를 열어두는 여유있는 지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필자는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생물학과 형이상학과 시를 토대로 한번 그 의미를 조금 자유롭게 살펴보고 싶었다. 본질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혼융합의 시대에, 이미 더 자유로운 학문적 시각으로 지적 대상을 사유해 본 분들과 함께 여기 자그마한 경험이라도 공유하고 싶다.

1)Philosophy of Life and Poems

2)SHIN, Dongwon,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McGill University,
E-mail: dongwonshin2012@daum.net

1. 소월의 고향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찬바람에 떨어지는 늦가을 벚나무의 이파리들을 바라보다, 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가 가슴에서 흘러나왔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일까? 징기스칸 기마병이 습격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 시간과 공간은 송두리채 뒤섞어 버렸다.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들이 전혀 딴 옷을 걸쳐 입고 나의 삶 앞에 낯설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좋아하던 동태 찌개집이 고위험시설로 바뀌었다. 성경책들고 찬송부르는 교회는 네로시절 카타콤처럼 긴장한다. 그래도 계절은 계절이나 보다. 코스모스와 낙엽은 시치미 딱 잡아떼고, 아무 일도 없는 양 곱디고운 가을회화를 던지고 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가을바람 속에서 나는 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시가 들려 왔다. 그리고 소월의 시혼(詩魂)이 부활하여 피난민처럼 멍해져버린 나를 깨워 세웠다.

<적어도 평범한 가운데서는 사물의 정체를 보지 못합니다. 습관적 행위에서
는 삶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 김소월, 시혼(詩魂), 개벽, 1925년 5월호 -

당시 세상은 산업혁명으로 막강해진 유럽국가들과 일본이 제국주의의 망령에 빠졌다. 온 나라가 전쟁과 죽음, 약육강식의 무질서로 돌아가고 있었다. 수백만, 수천만의 젊은 군인들이 히틀러, 무솔리니, 히로히토의 광적인 전쟁터에 동원되었다.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다. 오직 광기와 주검만이 온 세상을 어둠의 장막처럼 덮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정치지도자가 아니다. 종족살해범이요 인류전쟁범이었다. 이제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사라진지 10여년. 하루일과는 전쟁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전쟁이야기로 끝난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벌이며, 이완용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주권을 강탈했다.

<엄마야 누나야>는 3·1 운동 후 1924년 <진달래꽃>이란 소월의 첫 시집에 수록된 시다. 국가는 사라지고 세계는 서로 목숨걸고 싸울 때 탄생한 시다. 그러므로 시 속의 엄마와 누나는 대답없는 외침일 따름이다. 강가에 있는 금모래는 빼앗긴 들의 금모래였고, 밤의 갈대소리는 애처로운 통곡이었다. 그러므로 <엄마야 누나야>는 <이편 현실의 노래>가 아니고 <저편 꿈의 노래>다. 그 옛날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마저도 소월에게는 동경의 세계였다. 차라리 동물의 세계는 평화로운 자연이었다. <이편의 세계는> 서로 아는 이웃들끼리 피투성이 흥건한 생명파괴의 전쟁터였기 때문이다.

같은 시대 유럽. 약소국 네덜란드에서도 소녀 안네는 피난생활일기를 쓴다. 유태인출신의 안네는 히틀러의 비밀경찰을 피해 암스테르담의 작은 은신처에 머문다. 생과 사의 극적인 갈림길 속에서도 안네는 놀랍도록 의연하고 리얼했다. 전쟁상황을 잘 이해하는 섬세한 소녀작가의 필치는 전세계를 감동시켰다.

“1944년 4월 11일. 어느 날 밤 11시 15분. 사람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우리 식구들의 숨소리만 들리고, 누구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독일의 비밀경찰 계슈타포가 암스테르담 골목 우리의 은신처에 나타난 것이다. 심장이 격렬하게 고동쳤다. “이제 끝장이구나” 생각했다. 내가 유태인수용소에 끌려가는 모습이 떠올랐다.”

청년 소월이나 소녀 안네나 인류역사상 최악의 비극적 전쟁상황 속에서도 글을 쓰며 꿈을 키우며 작가의 길, 인생의 길을 치열하게 뚫고 살았다. 그래서인지 안네의 일기에서도 소월의 <엄마야 누나야>와 유사한 감성의 흔적이 나타난다. 안네가 마치 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를 해설하고 있는 것 같다.

“1944년 2월 12일 토요일 / 터질 것 같은 내 마음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은 맑게 개었고, 상쾌한 산들바람이 불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깊은 동경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싶고, 자유로워지고 싶고, 친구가 그림고, 혼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 실컷 울고 싶습니다. 소원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울고나면 기분이 후련해 지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안타깝게도 나는 자연을 가끔, 그것도 먼지투성이인 창문에 더러워진 레이스 커튼 너머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헤겔의 말대로 생명은 우주의 이념이다. 그렇다. 생명이란 죽음이라는 이름의 무한한 암흑속에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시간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병과 죽음에 대하여는 염려도, 공부도, 투자도 많이 하지만, 정작 생명자체에 대하여는 염려도, 연구도, 투자도 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미국의 작가 윌리스(1962~2008)은 ‘어항 속의 물고기’ 조크로 더 유명하다.

두 마리의 어린 물고기가 어항속을 여유있게 수영하다 함께 있는 나이 많은 물고기를 만난다. 그가 묻는다. “애들아, 요즘 물은 어떠니?” 애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묻는다. “도대체 물이 뭐예요? 처음 들어본 얘데요.” 그러자 나이 많은 물고기가 답을 한다. “너석들, 물에 사는 너석들이 물도 모르는구나. 허기야 나도 한 때 그랬었지”

그러자, 어린 물고기가 물 속에서 꼬리를 흔들며 다시 질문한다. “아저씨, 물이란 게 도대체 뭐예요?” 나이든 물고기는 지긋이 눈을 감으며 고백한다. “어느 날이었지. 갑자기 온 집안이 흔들리다 갑자기 쿵소리가 나자, 나도 모르게 나의 온 힘을 다하여 공중으로 솟구

쳤지. 그러다 어딘가에 쿵 떨어졌는데, 어항 밖 요리탁자 위였어. 아무 것도 없는 공중, 아무 것도 없는 맨바닥이었어. 살아날려고 몸부림쳤지. 그러나 몸부림칠수록 나는 더욱 숨이 막히고 머지않아 죽을 것만 같았어.

그 때 주인집 막내아들이 구세주처럼 나타났지. 그리고 나는 그의 스푼을 타고 다시 이 어항 속으로 돌아왔어. 그 때 나는 깨달았다. 아, 여기가 물이었구나.”



<그림> 윌리스의 어항속의 물고기

인류에게 이 조크는 20세기에 나타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BC 5세기전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Know Yourself)”라고 외쳤다. 그러나 소크라테스(BC 470~399) 마저도 그 말은 그가 처음으로 생각해낸 말이 아니다. 이미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부터 그가 매일 예배드리던 텔파이 신전의 입구에 문패처럼 걸려있는 세가지 아포리즘, 인생좌우명 중 하나일 뿐이었다. 참고로 나머지 두 아포리즘(Aphorism)은 “지나치느니 하지 말아라(Nothing to Excess)”와 “확신은 멸망을 자초한다.(Surety brings Ruin)”라고 전해진다. 이와 유사한 뜻의 아포리즘으로 공자(BC 551~479)는 ‘나는 나이 오십에 지천명(知天命)했다’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였다.

생명의 문제에는 보통 기본적인 질문이 따른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등등.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한 가지 같지만 사실상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질문이 들어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수천년, 수만년의 인류역사가 흘러왔지만, 이에 아직 모든 사람이 <바로 그거다>하며 쌍수 들고 환영하는 모범답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왜냐하면, 플라톤의 말대로 인간은 어떤 사물의 물자체(Things in itself), 그 본질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유로운 영혼

을 부여받은 인간의 본성적 한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생명을 내어 줄 수밖에 없는 인간일지라도,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떠 시간이라는 강물에 얼핏얼핏 비추이는 혹은 아른거리는 달빛처럼, <생명 그 자체>의 인상(印象) 정도라도 바라보며 산다면. 그래서 그것이 <구름에 달가듯이> 살아가는 내 삶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술 익는 마을, 타는 저녁노을>의 때가 이르러 생명력 넘치는 축제가 있다면, <뒷문 밖에선 갈잎조차 노래>부르지 않겠는가.

너무 멀리 나갔다. 어쨌든 윌리스 어항이 흔들리고 팡소리가 나는 외부의 충격적 사건 때문에 어른물고기가 어항밖으로 튀어나갔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체험을 하였듯이, 소월도 마찬가지였다. 어린 시절 목가적인 고향에 살다, 조국이 사라지고 세계대전의 광풍이 휘몰아치자 그는 완전히 예전의 고향에서 <어항의 물고기처럼 튀어나와> 도시의 맨 바닥에서 나가 떨어진 것이다. 그 곳에서 서러운 타향살이, 그것도 남의 나라가 된 도시에서 꿈많은 젊은 생을 끌고 나가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소월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평론에서 그의 초월적인 인생관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적막한 가운데서 더욱 사무쳐오는 환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고독의 안에서 더욱 보드라운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에서 좀 더 멀리 있는 죽음에 가까운 산머리에 서서야

삶의 아름다움이 생명의 봄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 김소월, 시혼(詩魂), 개벽, 1925년 5월호 -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엄마야 누나야>를 유행가처럼 아름답고도 슬프게 불러 본다. 그러면 소월이 동경했던 <생명의 새로운 봄바람>이 느껴진다.

2020년 늦가을. 필자는 일종의 전쟁인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나마 긍정적인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가 있는지 찾아보고 싶다. 고색창연한 철학적 아포리즘들도 다시 들여다보고 싶다. 삶이 짓누르는 고통이 우리네 짐으로 다가올 때 시들어 갈지 모르는 삶을 푸릇푸릇하게 해주는 시인들의 시들을 묵상해보고 싶다.

2. 연(然)과 소이연(所以然) 그리고 자연(自然)

릴케의 <장미의 내부, Inside the Rose>

어디에 이 내부에 대한

외부가 있는 것일까? 어떤 아픔 위에

이러한 아마포는 놓이는가?

이 열려진 장미들.
이 미소짓는 장미들의
내부호수엔
어떤 하늘이 비추일까? 보아라.



<그림> 고희의 장미

천재는 모순을 좋아한다. 꽃이 나비를 부르듯 모순은 천재를 부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비는 꽃을 만나, 꽃은 나비를 만나 그 타고난 모순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다. 천재시인 릴케(1875~1926)는 장미의 모순을 사랑했다. 함부로 꽃을 만지려는 사람에게 날카로운 가시로 찌르면서, 장미는 그 겹겹이 포개 순결한 꽃잎에서 생명의 절정을 보여준다. 세계의 아름다운 꿈은 모순을 거친다.

릴케는 삶의 세계의 모순을 보며, 장미의 미학을 포착했다. ‘가시’와 ‘꽃잎’이, ‘어떤 심한 상처’와 ‘부드러운 아마포’가 함께하는 현장을 릴케는 하이데거가 말하듯이 어린아이처럼 섬세하게 발견한다. 그리고 그 시인은 시어(詩語)의 힘으로, 순결하고 부드러운 꽃잎으로 장미의 내부와 외부사이 머나먼 모순을 연결한다. 생명의 내부와 생명의 외부가 통일이 되며 어둠의 고통은 사라지고, 어느새 장미 내면의 호수에는 맑고도 맑은 하늘이 떠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미는 릴케에게 하나의 예술의 장르이자, 고달픈 인생을 지도하는 초월적 멘토였다. “오, 장미여, 순수한 모순이여, 그 많은 눈꺼풀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게 꿈이 잠이 되는 기쁨이여!” 그의 묘비명이다.

릴케의 장미는 그의 부드러운 꽃잎의 창조로 내부와 외부사이 머나먼 모순을 아름답게 극복하며,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의 길을 연다. 이것은 부딪쳐오는 삶의 모순을 지성으로 초극(超克)하려는 생명의 본질적 구조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삶의 호수가에 꿈처럼 비치는 푸른 하늘의 햇살은 그 시의 절정에 이른다. 시의 존재의 이유도 그러한 꿈 세계를 언어로 표현하여 삶의 카타르시스를 느껴보는 것이이다. 그렇다면 실제 인생이나 나아가 국가사회의 현장에서도 릴케의 시처럼 모순을 극복하여 생명력이 넘치는 <장미의 미학>은 실현될 수 있을까?

퇴계와 고봉, 10년에 걸쳐 인생의 형이상학적 구조를 토론하다

조선의 모순과 꿈,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

서구사회가 르네상스와 자연과학의 발달로 새로운 근대사회로 발돋움하고 있을 14~15세기 조선도 새로운 역사의 도약을 위한 지성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때 고려사회가 겪었던 모순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새로운 역사로 개선하기 위하여 나타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통치이념이다. 그 중에서도 퇴계와 고봉의 사단칠정의 논변은 성리학논쟁의 하이라이트를 이루었다.

나는 여기서 이 4·7논쟁을 정치사적(政治史的)적 관점이 아닌 생명사상적(生命思想的)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다. 왜냐하면 성리학은 본질적으로 우주와 자연과 생명과 인간사회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로부터 사백여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논쟁을 오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내가 왜 사는지’의 문제에 대하여도 본질적 교훈이 들어있을지 모른다.

보통 동양사상에서 연(然)이란 현상(現象)으로 존재하는 일상과 자연을 말하고, 소이연(所以然)이란 그러한 현상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까닭 혹은 그 주재원리(主宰原理)를 말한다. 또 사단(四端)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도덕적 이상을 말하며, 칠정(七情)은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일상적 감정을 말한다. 조선 선조때 퇴계와 고봉은 바로 이 사단칠정(四端七情論)에 대한 심오하고 차원높은 서한논쟁을 10년 가까이 진행하였다. 그렇다면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은 현상으로 존재하는 일상으로서의 연(然)이고, 인의예지를 중심으로한 사단은 인간을 이상적인 사회로 가게 하려는 어떤 소이연(所以然)의 세계다. 그리고 연(然)과 소이연(所以然) 사이에는 항상 극복하기 힘든 다양한 모순들이 존재한다.

퇴계와 고봉은 주자학체계를 요약정리한 김안국의 문인(門人) 정지운(鄭之雲, 1509~1561)의 천명도(天命道)를 퇴계가 수정하는 사건에서부터 쟁론은 시작한다. 여기에서는 그 주제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돕기 위해 퇴계와 고봉의 논쟁을 예시적으로 재구성해 본다. (참고: 퇴계집, 장기근역, 2003)

고봉: <天命圖>에서 “四端은 理에서 발현하고 七情은 氣에서 발현한다”라고 하였는데, 선생께서 ‘四端은 理가 發現한 것이요, 七情은 氣가 發現한 것이다’로 고쳤다고 들었습니다.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七情 이외에 달리 四端이라는 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理에서는 發할 수가 없습니다. 理는 움직이지 않고 氣위에 탈(乘) 뿐입니다.

퇴계: 그대가 나의 잘못을 일부 깨우쳐 주었소. 또 논쟁의 실마리가 될까 염려하여 다시 “四端은 순수한 理에서 發하므로 善하지 않음이 없고, 七情은 氣를 兼하였기 때문에 善惡이 있다.”로 고쳤오.

고봉: 아직 본질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시다. 理는 본시 순수한 天理에서 發하는 것이니까 四端이 나올 수가 없고, 바로 七情 중에서 發하여 節度에 맞을 때 四端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거늘 四端과 七情을 서로 대립시켜 가지고 ‘四端은 순수한 理에서만 나온다 또는 “七情은 理氣를 兼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퇴계: 四端도 情이고 七情도 情임을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 같은 情인데 왜 四端이니 七情이니 이름을 달리했겠습니까? 性이라는 한 글자를 풀이함에 있어서 子思는 왜 天命之性이라 하고, 孟子는 왜 性善之性이라 합니까? 理와 氣가 가리키는 본질적 實相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리키는 바가 理에 있고 氣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純善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봉: 四端과 七情은 人心과 道心の 구분과는 다릅니다. 七情을 오로지 人心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理와 氣는 본래 분별이 있지만 그것이 사물에 대해서는 混沌一切가 되어 主宰와 材料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天命의 本源이며 악한 것은 氣稟에 있어 과하나 부족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四端과 七情은 처음부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퇴계: 그대가 보내온 편지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대는 理와 氣가 서로 다르며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설을 적극 주장하므로 理가 없는 氣가 없고, 또한 氣가 없는 理도 없다고 하며, 四端과 七情이 다른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대의 생각은 비록 옳은 듯하지만, 聖賢들의 뜻을 가지고 헤아려보면 합당하지 못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周子는 無極이 太極이라는 설을 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理와 氣가 따르는 속에서 오직 理만을 뽑아내어서 말한 것입니다. 공자가 서로 가깝고 서로 먼 性을 말한 것은 理와 氣가 합쳐진 속에서 둘을 다 겸하여 가리키면서도 氣를 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합하는 것을 좋아하고 나누는 것을 싫어하며, 四端과 七情의 근원을 규명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이와 기를 겸하여 선악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더 분별하려 하지 않습니

다. 朱子는 말했습니다. ‘四端은 理가 發한 것이고, 七情은 氣가 發한 것이다. 나는 주자의 이 말을 얻은 후에 비로소 나의 소견이 크게 잘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당초의 나의 설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10여년 동안의 깊은 논변을 통하여 이 퇴계와 기 대승은 결국 철학적으로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이 황은 理氣二元論의 理想의 세계로, 기 대승은 理氣一元論의 現實의 세계로 각각 간다. 조선의 두 거유(巨儒) 사이에 화해의 철학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쟁론출발의 단초가 되었던 <천명도>, 즉 생명과 자연에 대한 근원적인 세계관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즉, 이 세상에는 생명과 자연의 所以然으로서 인간너머의 태극의 질서를 보고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느끼는 눈앞의 자연과 세계, 그것이 전부로 알고 살아가느냐의 차이다. 퇴계는 기대승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충고한다.

“여보게, 고봉. 자네는 四端과 七情은 ‘이름만 다르되 실질은 같다.’고 말했네. 그러구, 七情도 역시 仁義禮智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렇치 않을걸세. 고봉.

무릇 사람은 말이 없으면 타고가지 못하겠지만, 말은 사람이 없다면 제 길을 가겠는가? 사람과 말은 서로 받들고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理와 氣도 그러지 않은가. 그래서 사람이 말을 타고 가면, 사람이 간다고 하면 되었지, 굳이 사람도 가고 말도 함께 간다고 말해야 되겠소. 그래서 내가 理가 發하여 四端을 말하는 것을 보고, 그대가 억지로 氣의 發까지 논한다면, 그것은 마치 사람이 간다는 말을 하자, ‘아니요, 말도 함께 가요.’라고 말하는 억지와 무엇이 다른가?

여보게, 고봉. 理와 氣가 같다는 점에서만 보면, ‘두 가지가 아니다’ 하는 말(즉, 二物이 아니라 一物)이 그럴 듯하네. 허나, 둘은 서로 對立시켜 세밀히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신기하게도 理와 氣는 그 차이가 보이네. 四端이건, 七情이건 우리가 근원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가(所從來)가 중요하지 않겠소.”

퇴계는 이 순간 매우 단호했다. 기 대승과의 8년여의 논쟁. 치밀하게 현실론으로 파고드는 호남의 차세대 주자 기대승의 공격에 대하여 퇴계도 여러 번 당했다. 그러나 최후의 방어선은 태극도였다.

그 다음 해, 1568년 12월 68세 겨울. 기대승과의 기나긴 4·7논쟁을 마친 후, 퇴계는 갓 왕위에 오른 선조에게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차자(筴子)로 올린다. 10개의 그림 중 제1도는 <태극도>, 그것은 <천명도>의 본판이었다. 그리고 그 첫 줄은 바로 주자가 말한, “무극(無極)이면서 태극(太極)이다”

한국의 평화사상가 이 울곡

1554년, 정지운의 <천명도>를 퇴계가 고칠 때,

19세 울곡은 어머니 사임당을 보낸다. 하도 슬프고 고통스러워 엉뚱하게도 그의 발길은

한양이 아니라 금강산으로 간다. 복귀 후 당시 심정을 선조에게 밝힌다.

“신이 어린 나이로 도(道)를 찾다가 학문하는 방향을 몰라 제가(諸家)를 넘나들며 일정한 길을 잡지 못했고, 또 일찍이 자모(慈母)를 여의고는 망령되어 슬픔을 잊고자 석교(釋敎)를 탐독하다가 마음이 어두워져 드디어 깊은 산으로 가서 거의 1년이 되도록 선문(禪門)에 종사했습니다.”

신라와 고려시대의 불교문화를 억제하고,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유교를 채택한 조선사회에서 유학자가 불교에 입문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율곡의 짧은 금강산 선문(禪門)은 그의 사상의 폭을 넓혔고, 몇몇 일화를 남겼다. 그 중 노승과의 에피소드는 짧지만 율곡사상의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을 준다.

금강산을 유람하던 어느 날, 율곡은 깊은 골짜기를 얼마 가다 조그만 암자에 단정히 앉아있는 노승을 만난다. 율곡이 묻는다.

율: 공자와 석가, 둘 중 누가 더 성인이오?

승: 젊은이, 놀리지 마쇼. 그런데, 유가에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은 있소?

율: 맹자가 요순처럼 살라하는데, 그제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과 뭐가 다르오?

승: 그대는 ‘색(色)도 아니고 공(空)도 아니다’라는 뜻을 아오?

율: 소리개가 하늘에서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다면, 이것은 색이오 공이오?

승: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님은 말로서는 말할 수 없는 진여(眞如)의 체(體)라 하오. 그러나, 그런 엉터리 시로 어떻게 선세계의 본질을 빗댈 수 있단 말이오.

율: 언어적 표현을 거쳤다면 상대적 인식의 지평인데, 어찌 진여의 체라 할 수 있겠오. 허면 유가는 말로 진리(妙處)를 전할 수 없는데 불교는 된단 말이오?

승: (화들짝 놀라 율곡손을 잡는다.) 그대는 세속의 범용한 선비(俗儒)가 아니요. 나를 위해 시를 지어, ‘소리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다’는 글귀의 뜻이나 풀어 주오.

율곡이 다음 절구 한 수를 써 주었다. 노승은 읽더니 그것을 소매속 깊이 넣고는 벽을 향해 돌아앉는다. 사흘이 지난 뒤 그 자리 가보았더니 암자는 그대로인데 노승은 떠나버리고 없었다.

<시: 풍악산 작은 암자의 노승에게 주다. 楓嶽贈小菴老僧>

물고기가 뛰놀고 솔개 나는 것은 위아래가 한가지라.

이것은 색도 아니고 공 또한 아니라네

무심결에 한번 웃고 내 몸을 돌아보니

석양의 나무 숲 속에 홀로 서있네

魚躍鳶飛上下同
 這般非色亦非空
 等閒一笑看身世
 獨立斜陽萬木中

나는 율곡과 노승과의 문답과 시를 통하여 율곡 철학의 방향성을 짚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율곡의 시를 보며 화평과 생명을 지향하는 율곡사상은 이 때부터 이미 그 싹이 자라고 있음을 느꼈다.

율곡의 금강산 즉흥시는 외치고 있다.
 물에 사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뛰놀고,
 날개가 달린 새는 하늘에서 날아야 한다.
 그것이 위아래가 저마다 제자리를 얻는 길이다.
 눈에 보이진 눈에 보이지 아니하진
 자연이 주는 본성(本性)대로 현재 살아가고 있다면
 그 길이 바로 요순이 살았던 길이며, 맹자가 들려준 선한 세계다.

그러나,

풀과 나무, 날짐승과 길짐승의 모습도 옛모습 그대로인데, 시대는 날로 어두워져 옛 인심은 회복할 수 없고, 사람들은 스스로 무엇을 좇아야 할지 모르는 구나. 색파와 공파, 동인파와 서인파, 별의별 이름을 가진 봉당들이 가지가지 논설을 만들어, 스스로의 이로움과 해로움을 헤아리며, 낮도 없이 밤도 없이 권력싸움을 벌이느라 정신 없구나. 아, 도(道)가 높고 가슴이 큰 인물들은 다 어디로 갔는고? 한 시대의 태양은 이제 서서히 서산 뒤로 떨어지는데, 우리의 날은 점점 차가와 오는데, 홀로 서 있는 나, 율곡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이제 어디로 가야하나?

이율곡의 이기지묘(理氣之妙) 사상을 찾아서

1558년 봄. 율곡과 퇴계가 만나다.

금강산에서 돌아온 23세의 청년 율곡은 58세의 동방주자 퇴계를 안동 도산에서 만난다. 퇴계는 ‘후생(後生)이 가외(可畏)라는 옛날 성인의 말이 나를 속이지 아니하는구나’하며 율곡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미 퇴계는 정지운의 <천명도> 수정하면서부터 기대승과의 4단7정 논쟁이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이미 퇴계가 세운 주자학이론이 조선조 사회의 주류가 되어 버렸다. 사류들의 정신과 생활에 파고들고 있었다. 율곡이 안동에서 퇴계를 만난지 15년이나 지난 1564년. 29세가 된 율곡은 별시와 문과에 각각 장원급제한다. 이제 엘리트 관료생활을 하며, 이제 율곡도 성호원과 이기론과 사단칠정론을 쟁론하고 있었다. 오고 간 문답서에서 율곡은 퇴계의 리기호발설(理氣互發설)은 불가능하다고 논증하면서 율곡 스스로의 기발리

승일도(氣發理乘一途)을 전개한다. 이미 그 때는 퇴계는 고인이 되었고, 이제 율곡이 주자학이론의 주류로 떠오른다.

지금 볼 땐 좀 고루해 보여도, 조선중기의 이기론(理氣論) 논쟁은 한국사상이 업그레이드하게 되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한다. 더구나 그 주제는 보편적 인류가 가져야 되는 세계적 사상이었다. 인간과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형이상학적 관점을 매우 깊게 파고들고 있었다. 나는 오늘의 시각에서 당시의 주자학적 이기론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알아보고 싶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때문에 전세계는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물결에 빠져드는데, 동양의 약소국 조선사회 엘리트들은 왜 생명현상에 대한 철학적 주제로 10년 20년씩 끌면서 토론을 하고 있었을까?

첫째, 이(理)와 기(氣)는 한 몸(一物)인가 두 몸(二物)인가?

요즘 기독교에서도 성경 한 귀절을 가지고도 여러가지 해석이 있듯이, 주자가 말한 <이와 기는 불상리(理氣不相離)요 동시에 불상잡(理氣不相雜)이다> 이 귀절에 대하여도 퇴계나 율곡이 해석이 달랐다. 한편, 만물의 이(理)도 반드시 똑 같은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벌과 개미는 임금과 신하가 있는데 이는 또 다른 의(義)라고 할 수 있다. 호랑이와 이리는 부자관계(父子關係)가 있는데 이는 또 다른 인(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하여 만물이 똑 같은 데서 나온 것을 보면 이(理)가 같고 기(氣)가 다르다. 하지만 만물의 모습이 서로 다른 것을 보면 오히려 기는 서로 비슷한데 이가 반드시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쉬운 예로, 만약 이를 영혼이라고 보고, 기를 육체라고 한다면, 퇴계이론에 따르면, 영혼과 육체는 본질이 다르지만 서로 합쳐서 인격을 만든다고 보는 것이고, 율곡이론에 따르면 영혼과 육체는 둘이자 하나요, 하나이자 둘이라는 뜻으로 있으면 함께 있고, 없으면 함께 없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퇴계나 율곡이나 이가 기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같다. 여기에 서경덕의 주기론에 따르면 영혼이라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형성이 되면서 뒤따라 생겨나는 것이다. 21세기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의 이론이 가장 옳을까? 이와 기를 만약 영혼과 육체의 관계로 본다면, 퇴계와 율곡은 아직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둘째, 仁義禮智는 이에서, 喜怒哀樂은 기에서 각각 비롯될까?

아니면 모두 다 기에서 발생은 하나? 그 감정에 이성이 작용하게 되면 선한 감정이 되는 것이고, 이의 탐(理乘)이 없다면 사사로운 욕심이나 감정만 남게 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퇴계의 주장은 인간의 본성자체에 선한 심성인 도심(道心), 즉 이의 기능이 본래 있고(理發氣隨說), 배고프면 먹고싶고 졸리면 자고 싶듯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인심(人心)은 따로 기의 기질에 따라 이원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반면, 율곡은 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상으로 존재하는 기만이 할 수 있어 희로애락이나 인의예지

나 다 먼저 기에서 작용은 하나, 그 중 이의 선한 기능이 탈 경우 선한 감정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당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율곡의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設)이다.

율곡사상의 핵심인 기발이승일도론에서 기발이승(氣發理乘)이란 기가 발하면 이가 올라 탄다는 이야기이다. 이 말은 기가 시간적으로 이보다 앞섰다는 뜻이 아니라 氣속에 理가 들어 있으면서 기를 주재한다는 뜻이다. 마치 세포 속 핵안의 DNA 정보가 사실상 유기체의 발육과 성장 그리고 번식을 다스린다는 것에서 볼 때 그 정보는 사실상 식물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기는 형이하이므로 보이고 이는 형이상이므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통기국(理通氣局)이라는 말도 이는 막힘이 없고, 기는 막힘이 있다는 뜻으로 기는 형이하의 유형적 실체이므로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율곡은 이와 기의 이런 관계를 물과 그릇에 비유하기도 한다. 예컨대, 그릇은 모난 것도 있고, 둥근 것도 있지만, 그 그릇에 담긴 물은 똑 같은 물일 뿐이다. 여기서 물은 이에 해당하고 기는 그릇(器)에 해당한다.

셋째, 태극(太極)과 음양(陰陽)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할까?

태극(太極)과 음양(陰陽)의 존재문제는 세가지 경우가 있다.

먼저, 퇴계의 태극도설(太極圖說)이다. 오행(五行)은 바로 하나의 음양(陰陽)이고, 음양은 바로 하나의 태극이며, 태극은 본래 무극(無極)이다. 오행이 생(生)함에 저마다 하나의 성(性)을 갖춘다.

둘째, 율곡은 결국 정주학에 입각하여 태극을 음양의 근저로 보고, 이를 어디까지나 ‘이’로 규정하는 동시에 그것이 항상 음양가운데 내재하여 있는 ‘존재’로 해석되었다. 일음일양(一陰一陽)한 번 음이 되고 한번 양이 되는 까닭은 즉, 태극으로서의 태극은 그 어느 쪽에도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음양이전에 태극이 따로 독립해서 있었다고 보아서 안된다. 여기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속에서 끊임없이 달라지는 기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기는 왜 다양한 유형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율곡은 기가 작용하는 이유를 태극, 음양, 오행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태극(太極)은 바로 이이면서 도로서 태극이 움직이면 양이 생기고 움직임이 극에 달하여 움직임을 그치면 음(陰)이 생긴다. 음과 양은 형태를 가진 기(氣)이면서 동시에 기(器)이다. 그런데 기(氣)에는 이미 이(理)가 타고 있으므로 음양(陰陽)은 기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이(理), 태극(太極)이다.³⁾

³⁾ 율곡은 그의 <성학집요(聖學輯要)>에서 주역(周易)과 주자(周子)의 태극도설(太極圖說)을 설명하며, 태극(太極)과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이론을 통하여 만물, 즉 생명과 생태계의 생성과 그 변화를 설명한다. 이 점에서 퇴계와 마찬가지로 태극(太極)과 이(理)를 형이상(形而上)의 도(道)이자 만물의 오묘한 본체(本然之妙)이자 시초로 인정한다. 다만 퇴계는 그 이(理)가 발(發)-현상계에서 스스로 구체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함)한다고 보고, 율곡은 그 이(理)가 승(乘)-이는 구체적 현상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은 변하지 않은 원리로 작용하며, 그에 따라 기가 움직인다고 봄)한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 이이(李珥), 성학집요(聖學輯要), pp 96-102 (김태완 옮김, 2007, 청어람미디어)

그러면 음(陰)과 양(陽)은 어떤 일을 하는가? 양이 움직이면 음이 따라가는데, 이를 일러 변합(變合)이라고 한다. 그런데 음양(陰陽)이 변합하면 오행이 생긴다. 오행은 수(水), 화(火), 목(木), 금(金), 토(土)를 말하는데, 음양이 기(氣)이듯이, 오행(五行)도 기(氣)이다. 그러면 오행(五行)은 무엇을 하는가? 오행은 이미 그 안에 음양(陰陽)이 있는데,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은 정묘하게 교감하고 변화하여 만물의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그 만물의 생성과 변화는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만물(萬物)은 모두 기(氣)이면서 동시에 이(理)를 타고났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하나가 모두 태극(太極)과 도(道)와 성(性)과 형이상(形而上)을 갖는다. 이(理)의 관점에서 본다면 만물은 모두 평등하다.

마지막으로, 주기론의 화답은 경전(經傳)에는 천지가 생성되기 이전인 선천(先天)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 없다. 선천에 있어서는 오직 <충막무짐>(冲漠無朕), 아무런 물건이나 싹과 조짐이 없는 공적(空寂)한 상태라고 하면서 이를 음기(陰氣)로 규정하였고, 그 가운데 이른바 <담일청허>(澹一靑虛)가 기의 시초로서 음양(陰陽)을 생한다고 보았다.

공자의 말에, <역에 태극이 있어 양의(兩儀: 陰陽)를 생한다.> 하고 주자(周子)는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이라고 하였다. <충막무짐>(冲漠無朕)이란 것은 오직 태극만을 단지(單指)한 것으로 실상은 충막도 없고 음양도 없는 때인 것이다. 이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는 음이 양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니 이것이 곧 전천지(前天地)가 이미 없어진 나머지일 것이다. 태극은 그 음가운데 내재해 후천지가 장차 열리어 음양이 비로소 생기면, 태극은 그 양에 내재해 있게 되니, 그것이 공중에 메달리려고 한들 되겠는가.

화답은 그 설을 지나치게 주장하여 음양핵심의 묘가 태극에 있는 것을 모르고 일양미생(一陽未生)의 전의 음으로서 음양의 근본을 삼고 있으니 성현의 본지와는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음양은 시(時)도 종(終)도 외(外)도 없고 일찍이 부동부정(不動不靜)한 때도 없다. 한번 동하고 한번 정하고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어도 <이>(理)는 거기에 있지 아니함이 없다. 그래서 태극을 음양의 근본으로 삼는 것이며 실상 음양이 생기기 전에 태극이 독립해 있을 때는 없는 것이다. 음양이 순환하여 마치않고 태극이 또한 없을 때가 없으니 태극이 만화의 중추와 만물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까닭이다. 화답의 연구가 깊지 아니한 바는 아니나, 다만 그 사색이 중(中)을 지나쳐 도리어 기(氣)로서 음양의 근본을 삼으니 이와 기가 얽히어 분간할 수 없게 되어 성현의 본지와 묘합(妙合)되지 못함을 못내 아깝게 여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관념론적 변질은 원래 애매하여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잘못되었다고 분간하기 어려우나, 울곡이 태극을 음양동정(陰陽動靜) 가운데 내재한 <이>(理)로 규정하였다는 것은 즉, 음(陰)과 양(陽), 동(動)과 정(靜)의 공통된 원인의 통분모가 곧 태극(太極)이요, 리(理)라는 것이었다.

인간의 짧은 지혜 앞에서 생명과 자연에 대한 우주적 세계관의 완전한 통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사실은 인류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고 수도 없이 벌어지는 인간사회의

갈등과 전쟁들이 증명하고도 남는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지성은 결코 이를 포기한 적도 없다. 최소한 서로 모순되는 세계관 속에서도, 그로인한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인류의 지성들은 진리와 조화의 길을 추구하여 왔다. 四七전쟁 후 조선사회의 이념적 거리와 사회적 모순은 오히려 더 심화되었지만, 이 틈을 메우려는 지성적 노력 역시 끊이지 않았다.

율곡의 자연관과 인성론은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통일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연관 속에 인성론이 들어가 있고 인성론 속에 자연관이 포함되어 있다. 자연과 인간, 즉 천지인(天地人)은 하나의 통일체로 보는 시각은 율곡만의 독특한 시각은 아니지만, 이를 설명하는 논리의 깊이와 정합성에는 율곡의 독창성이 보이며, 바로 이 점 때문에 성리학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고유한 자리가 있는 것이다. (한영우, 율곡평전, 2013, p. 270)

율곡은 천재적 지성과 성자적 정열로 이기지묘(理氣之妙)로 대표되는 그의 창조적 성리 철학을 완성했다. 조선 중기의 모순과 상처투성이의 맨 땅에서 한 시대의 아픔과 무게를 홀로 등에 메고 스스로 삶을 산화시킨 천재철학자 율곡. 그가 빚어낸 초월적 변합(變合) 사상과 초인적 업적은 어느 날 다가오는 한국역사의 아픔을 치유할 것이다. 그 상처를 겹겹이 싸매어 <아름답고 빛나는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아마포가 될 것이다. <외부의 세계>와 <내부의 세계>를 연결시킨 장미꽃들은 그의 푸른 하늘을 볼 것이다.

<끝>